

이 시대 표현하는데에는 돈이 최고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팔아 큰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예술의 순수성과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까?’ 돈과 예술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예술을 이야기할 때 돈을 생각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하지만 정치인, 기업인, 학자, 예술인, 심지어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돈을 멀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전(錢)자가 변영환(55·사진) 선생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속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6월 15~21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그의 15번째 전시회 ‘머니토피아(Money-topia)’를 연다. 동전을 집적(集積)해 만든 작품 30여 점과 전시 첫날 변영환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 ‘머니토피아’를 만날 수 있다.

변영환 작가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상황-머니토피아’에서 10원짜리 동전 30만개를 깔고 그 위에 ‘기가 센’ 붓다, 예수, 성모마리아, 인간을 올려놓는다. 또 기계, 전등 등 이슈가 되는 소재의 상징물로 장난감로봇과 탱크 등을 놓았다. 돈을 통해 변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종교도, 예술도, 전쟁도 모두 돈을 좇고 돈을 위해서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거대한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고층빌딩은 자본주의 시대의 상징이다. 변 작가는 10원짜리 동전 수천개를 접착제로 쌓아올린 작품 ‘마전루(摩錢樓)’를 통해 다다익선(多多益善),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이야기한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지나친 물질만능은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돈은 순수 그 자체이지만 돈을 소유하는 주체자의 의도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 작가의 생각이다. 일체 만물의 모든 현상은 그 성품으로 보면 다 공하다는 일체개공(一切皆空)과 공(空)사상, 또는 중용(中庸)사상이 엮여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 ‘머니토피아’는 ‘머니(Money)’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아무데도 존재

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머니를 추구하지만 머니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회화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하던 변 작가는 캔버스와 종이위에서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2002년부터 돈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돈의 외형적 소재로 예술활동에 매진하는 유일한 작가인 그는 ‘이 시대 마스터피스는 지폐, 최고의 조각품은 동전’이라는 돈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지폐·동전은 현대미술의 결정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5만원권 지폐는 이중상 화백의 신사임당 초상화가 어울려 뛰어난 조형감을 이뤘고, 종이·인쇄물감도 최상의 것이 사용돼 지폐의 변질을 막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똑같은 모양을 지녔지만 모두 다른 일련번호를 가진 별개 작품입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죠.”

(02)736-1020 이나은 기자



마전루



염원



상황-머니토피아

천 년의 고서에서 최첨단 전자책까지 ‘2011 서울국제도서전’ 6월 15일 서울 코엑스서



국내 최대 책 전시회인 2011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은, 미래를 보는 천 개의 눈’이라는 주제로 6월 15~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3개국 572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포함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2011 서울국제도서전은 특히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대표 특별전인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전’을 마련했다.

특별전에서는 초조대장경인쇄본과 팔만대장경 북각판,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복각된 (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문화유산물을 소개한다.

또한 팔만대장경판을 직접 인경(탁본)해보는 시간을 통해 초기 인쇄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팔만대장경 천

년을 기념해 출판된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의 저자 오윤희와의 만남도 인문학 카페에 준비돼있다.

또한 도서전은 희구본인 고려 금니사경(金泥寫經)과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 등 국보급 출판물을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출품 받아 전시한다. 한국의 고서명대전(Kobay)도 특별전을 열어 선비들의 집필과 특색에 따라 경매과정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와 저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와 출판사’ 설문조사 결과 상위 20위에 랭크된 출판사 중 12곳의 출판사가 도서전에 참가하며 그 외의 출판사들도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초청행사와 특별전시 등으로 모두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참여한다. 조계종출판사, 불광출판사, 민족사, 운주사 등 10여 회원사들의 신간과 경전 등 300여 종의 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소설 (무소유)의 정찬주 작가를 초청해 ‘내가 모신 법정 스님 - 법정 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초청 강연 및 사인회를 연다. (02)736-1020 이나은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⑦ 지구상상 사진展

불법(佛法)으로 코끼리를 구해라

2011년 5월에는 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하기 위해 거래가 금지된 상아의 밀반입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코끼리의 남획으로 코끼리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일부 서식지에서는 이미 멸종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끼리 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



닉 브랜트 작

간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도시도 볼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현상, 이산화탄소. 이 단어들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던 지구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단어 들이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 환경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윤배반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작품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경의심을 일깨워준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진은 제 1전시실의 첫 번째 사진은 흑백 코끼리 사진이다. 사진은 닉 브랜트(Nick Brandt)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닉 브랜트는 이번 전시를 열면서 “나에게 자연은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사진 속 동물들에게서 작가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이 느껴진다.

산양의 한 무리가 밀렵꾼들의 총성을 피해 필사적으로 초원을 가로질러 간다. 분리수거와 장바구니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며 살고 있다고 여겨진 나의 일상이 부끄럽고 초라해졌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생을 금하라 하셨다.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는 미물도 제각각 역할이 있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환경-지구 상상전은 8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된다.

6월 2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현대사회의 환경 지구상상展’의 막이 올랐다. 현대사상 작가들이 뜻을 모아 지구 사랑을 외쳤다. 오염으로 죽어가는 호수와 홍수로 범람하는 강, 전쟁으로부터 파괴된 도시, 인간 없는 세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야생 동물 등 빛나는 지구의 자연·환경 사진이 펼쳐졌다. 사진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뚜렷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닉 브랜트(미국), 루드 반 엠펠(네덜란드), 지아코모 코스타(이탈리아), 존 고도(영국) 등 저명한 세계 각국의 작가 10명과 로이터 통신이



지아코모코스타 작



존 고도 작



피포 누엔-두이 작

무료공개강좌 ‘금니로 만나는 비천’



선아트스페이스 제3회 무료공개강좌

일반인들이 불교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아트스페이스는 6월 25일 ‘금니로 만나는 비천’을 주제로 무료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비천(飛天)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실기수업

이 진행되며 비천의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20명 선착순이다. 예약은 전화와 메일,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홈페이지 참조 www.sunarts.kr) (02)732-0732 이나은 기자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사찰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

법정사	부산경북	보경사	경기	약사사	경기	고선사	경북	정음	경북
기룡사	강원	반야정사	전주	법사사	부산	원당사	광주	경주	경북
조주선관	강원	대승암	경남	수곡사	충북	미륵사	부산	부산	경남
운운사	경기	광명사	경기	수암사	충북	부심사	부산	부산	경북
극락사	경기	청운사	경기	도원사	충북	정각사	부산	부산	경북
성암사	경기	무심사	경기	도원사	충북	보은정사	부산	부산	경북
대원사	경기	응공사	대구	홍덕암	충북	용화사	부산	부산	경북
무애사	부산	동경사	울산	견불사	충북	약수사	부산	부산	경북
대관음사	대구	용관사	경남	지장사	충북	보광암	경주	경주	부산
불암사	부산	길상사	충북	지문용화사	충북	성주암	부산	부산	경북
성불사	서울	백봉사	충북	해송사	부산	무아사	부산	부산	경북
금선사	서울	천지암	경남	용림원	부산	문수암	부산	부산	경북
미암사	충남	백연사	부산	건봉사	부산	보광선원	부산	부산	경북
강원사	경북	현각사	충북	법륜사	부산	관음사	부산	부산	경북
봉화사	경기	연송사	충북	심원사	경북	지선사	부산	부산	경북
무상사	경기	극락사	충북	화심사	경북	약수사	부산	부산	경북
대운사	경기	어래사	충북	약수사	경북	미륵사	광주	광주	경북
흥안사	경기	덕천사	충북	관음사	경북	광산불원	부산	부산	경북
안심정사	충남	구룡암	충남	도성암	경북	대법사	부산	부산	경북
청암사	전남	약지암	충남	도성암	경북	황용사	부산	부산	경북
		상원사	충남	도성암	경북	복천암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대광암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묘법사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대선사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보문사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비로사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소유선원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약수암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약명사	부산	부산	경북
				도성암	경북	진영포교	부산	부산	경북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120cm
· 원통폭: 45cm
· 밑바닥폭: 30cm
· 무게: 25kg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 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